



조재수
SK가스(주) 대표이사 사장

21세기 에너지산업 환경과 LPG업계의 경영전략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

21세기는 정보, 통신, 컴퓨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정보화혁명이 가속화되고, 글로벌화의 확산으로 세계시장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치열해지며, 유형자산보다는 지적인 무형자산의 가치가 커지는 산업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크게 바뀔 것이다. 또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에너지산업도 소비 및 공급구조에서 큰 폭으로 변할 것이다.

국내에너지 산업환경의 변화

21세기 에너지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 (Driving Forces)는 먼저 20세기의 주요 에너지원이었던 석유자원의 공급한계 또는 고갈가능성을 들 수 있다. 물론 천연가스의 사용확대, 석탄의 효율적인 사용, 석유의 사용연수를

늘리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이 있겠지만 '한정된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이 적극 추진될 것인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조차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로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에너지 소비구조에서도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변화협약으로 온실가스 저감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환경친화적인 기존의 연료는 물론 대체에너지의 사용도 적극 추진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절약을 강조하는 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될 것이며, 에너지원에 있어서는 환경친화적이면서 연료효율성이 높은 에너지를 더욱 많이 선택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

LPG고객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불만족 사항을 개선하고
무공해의 쾌적환경이라는
잠재욕구를 만족시키는
Total solution을
제공해야 한다.**



두번째로 에너지산업의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들 수 있다.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가 없어지고 보호장벽도 철폐 또는 최소화되면서 에너지 분야에도 경쟁이 촉진되고 경영효율화가 유도됨으로써 지금까지 전력, 천연가스, LPG가 가져왔던 고유의 시장이 없어지고 에너지원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특히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민영화로 새로운 거대 에너지기업이 등장

한 '에너지 고객'의 변화는 '에너지 선택권의 행사'라는 형태로 표출될 것이며 그 요구도 대폭 증가할 것이다.

21세기를 위한 LPG업계의 대응방안

국내에너지 산업환경이 큰 폭으로 변화되면서 LPG산업환경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바뀔 것

따라서 LPG업계는 중장기적으로 21세기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등장할 대체에너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중, 단기적으로도 LPG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고객중심경영을 통한 LPG경쟁력 강화

LPG 업계는 무엇보다 먼저

**그동안 LPG산업은 제도적인 보호와 육성에 따라 생존, 발전하여 왔으나,
21세기에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LPG산업 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R&D 공동추진 등을 통해 집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하게 되면서 에너지원간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세번째로 에너지 소비자의 변화이다. 21세기는 삶의 질이 한 차원 높아질 것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의식수준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과거에는 받아들였던 불편함과 비합리성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에너지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이러

이다. 즉, LPG가 환경친화적인 연료인 만큼 미래 성장가능성은 많으나, 동시에 대체에너지의 등장가능성이 있으며, 규제완화와 산업자유화에 따른 에너지원간의 경쟁심화, 에너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즉 '공해없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편리하고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이용하고 싶다'라는 많은 환경변화를 맞을 것이다.

LPG고객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출발해야 한다. 즉 안전성, 이용편의성 등에서 고객의 불만족사항을 개선하고 무공해의 쾌적환경에 대한 잠재된 요구까지도 찾아내어 만족시키는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LPG시장은 LPG업계의 생존과 발전의 '기본 터'이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은 '우호적인 고객'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2. LPG의 환경친화성을 활용한 수요개발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연료사용 및 저공해 엔진 개발이 정부지원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세금감면과 같은 여러 혜택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인 LPG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친화성, 인프라 구축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할 때 LPG자동차가 기타 저공해차량보다도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일본경제연구소의 최근발표와 같이 'LPG가 화석연료중 단위발열량당 환경친화정도가 가장 우수한 연료'라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LPG의 연료로서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전용엔진 및 연료효율개선을 위한 Kit System 등의 개발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보전을 위한 LPG자동차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LPG업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LPG전용엔진 및 Kit System 개발을 통한 LPG차량의 성능개선, LPG차량의 시범운행, 충

전소 확충, 관련 연구개발 등을 적극 실행해야 할 것이다.

3.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LPG업계는 현재의 LPG유통구조를 시급히 개선시켜야 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유통관리 비용 감소효익을 고객에게 귀속시킴으로써 LPG산업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Small Bulk 공급확대, 체적거래제도 확산, 유통상의 비효율 제거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해서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아야 한다.

아울러 LPG시설은 물론 각 유통단계, 최종적으로는 고객의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보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거래처의 안전관리, 최종고객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홍보도 실시해야 하며, 동시에 가스안전장치의 개발 및 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1세기에는 기술발달에 따라 안전관리를 완벽하게 도와줄 장치

들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LPG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4. LPG업계의 결속력이 필요

21세기에는 에너지원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질 것인데, 이 때 경쟁의 초점은 에너지업계 내부보다는 각 에너지원 상호간에 맞추어질 것이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LPG업계가 공동으로 고객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LPG고객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LPG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우호적으로 고착화시키기 위한 업계의 결속력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세기의 LPG산업은 제도적인 보호와 육성에 따라 생존, 발전하여왔으나, 21세기에는 경쟁력만이 생존, 발전의 필요조건이 된다. 따라서 LPG업계의 각 관련 당사자는 자기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산업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R&D 공동추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